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졸업생과 주지 스님이 졸업식을 기념하는 모습.

“불교대학 졸업, 생활 속 수행을”

위례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28기 졸업식

위례 대원사(주지 진호)는 1월 31일 대원사 대웅전에서 대원사 청량불교대학 제2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보연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해 졸업한 28기 불자들을 축하했다.

청량불교대학장 진호 스님은 “7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며 익힌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달라”며 “불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반추해보라”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는 불자가 되기 위해 함께 정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신광철 씨는 “지난해 스님을 만나 처음으로 불교공부를 한 것이 어제와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다”며 “세월이 빠른 만큼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스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기해 수계법회도 진행됐다. 수계법회서는 17명의 졸업생 외에도 대중이 함께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의 삶을 서원했다.

졸업식이 열린 위례 대원사는 위례지역 도심포교당으로 문을 연 후 위례신도시 개발로 종교부지를 매입,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진호 스님은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불교대학을 통해 불교 사상을 전하고 있다. 위례 대원사는 올해 4월 7일 개산법회를 열고 도심포교의 첫 발을 디딘다.

진호 스님은 “하남을 비롯해 서울 위성도시로 많은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다. 여력이 된다면 도심포교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소자들과 함께한 합동차례

군산 성흥사, 군산교도소서 재소자 위로

군산 성흥사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합동차례를 개최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 영산작법 보존회 법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전북교구 스님들과 김영식 군산교도소장, 이덕순 성흥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한 합동차례와 법회는 축사, 법어, 합동차례, 영산작법, 국악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조상님과 부모님께 공양올리는 자리”라며 “차례상에 잔을 올려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월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을 크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대자비다. 다툼에는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참회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길러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식 소장은 “설을 맞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소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0여 재소자들의 합동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전북영산작법 보존회스님들은 영가 천도의식을 집전했다. 이어 김연화 국악원장 등의 국악공연과 가수 이옥선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성흥사 신도회와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재소자들에게 1000명분의 떡과 초코파이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형유산 전수할 ‘염불원’ 연다

영축총림 통도사, 염불대학원 최초 개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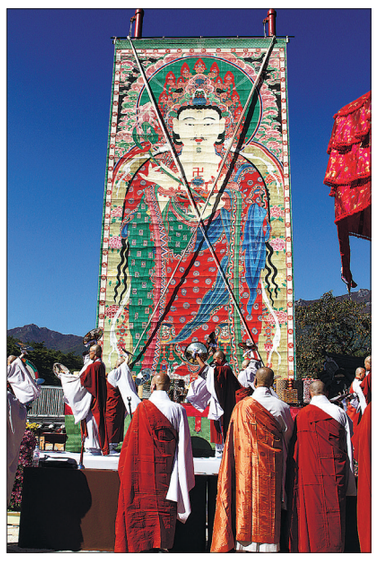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불교 무형문화 전수에도 힘을 쏟는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오는 3월 6일 조계종 총림 최초로 염불대학원을 열고 전문 교육을 시작한다. 총림은 선(禪)·교(敎)·율(律)을 겸비한 방장 스님 아래 후학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수행도량이다. 따라서 선원과 강원, 율원 그리고 ‘염불원’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계종 총림인 영축총림 통도사,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 팔공총림 동화사, 금정총림 범어사, 쌍계총림 쌍계사 가운데 염불원은 단 한 곳도 없다.

통도사가 염불대학원을 여는 것은 종합수행도량인 총림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불교 전통 의례의식을 강조해 한국불교 전통을 잇는 교육원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선종을 중시 여긴 정서로 외면당했던 한국불교 의식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첫 발걸음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염불대학원은 본과반 2년 과정과 전문어산반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본과반 △상용의식 및 재의식(도량석·종성·예불·불공·49재·각종 시식 및 영반) △불전사물(목탕·요령·법고·태징) △기본작법(바라무·나비무)이다. 전문어산반은 △상주권공재·수륙재·예수재 △작법(바라무·나비무·법고무·타주무) △복장 및 점안 의식이며 이외 지화장엄, 괴임새 등 장엄분야도 이어진다. 특히 우리말 의식을 강조해 현대화를 이끌고 티베트, 대만 등 해외 사찰을 방문해 비교 연구하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가진다.

3월 6일 조계종 총림 최초로
본과반 2년·전문어산반 3년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자격도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맡아


통도사가 총림 가운데 유일하게 염불대학원을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개산대재 당시 괘불이운 헌공 모습.

응시 자격은 조계종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2019년 구족계 수계 예정자도 가능)이며 모집 마감은 2월 28일이다. 모집요강은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입학식은 3월 6일 오후 1시 설선당에서 열린다. 졸업 후에는 3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염불대학원 전문반 입학 자격을 얻는다. 염불대학원장은 통도사 노전 영산 스님이 임명됐다.

영산 스님은 조계종 염불 교수사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이다. 교수사는 혜일 스님, 도경 스님이 담당한다. 혜일 스님은 불찬범음의례연구소 소장과 불찬범음의례교육원 학장을 맡고 있다. 도경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며 불찬범음의례교육원 교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총림 구성요소인 염불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두돼 왔다”며 “특히 통도사는 화엄산림 및 개산대재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지속적인 의식재현으로 교육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영남지역에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은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재될 만큼 가치 있는 불교문화”라며 “불교 전통의식은 종합예술이다. 앞으로 문화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의식으로 법고창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055)382-7182

“염불 공양 올리고 인재 키워요”

불교TV염불공양회 ‘제20회 장학금전달식’

염불을 공양하는 모임 ‘불교TV염불공양회’가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와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이하 염불공양회)는 1월 25일 부산 범일동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하정선 회장을 비롯해 50여 회원들은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원, 중고등학생 9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지원했다. 20년 동안 염불공양회는 매년 10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후원한 금액만 2억 원이 넘는다.

장학금은 봉사활동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전액 마련됐다. 장학금 전달을 하게 된 계기는 시다림 염불 봉사를 위해 방문한 가정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도움이 될 방법을 강구한 것이 시작이 됐다.

하정선 회장은 “시다림 염불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됐다”며 “더 많은 장학금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염불 봉사를 하는 주부 불자들의 모임이다. 하정선 회장은 가난 때문에 평생 불자였던 사람이 임종 후 장례식에서 염불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 봉사자를 모아 염불봉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봉사비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임종으로 슬픔을 겪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영가를 위한 지극한 염불 봉사를 주 활동으로 삼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도 새벽부터 염불 시다림 봉사를 다녀온 회원들은 특별한 법복을 입고 있었다. 짙은 초록색으로 염색한 광목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하얗고 깨끗한 목도리를 목에 둘러 단정한 차림이었다.

봉사 중 열악한 가정 목격
매년 1000만원 장학 후원
무연고 영가 병원비도 도와


하정선 염불공양회 회장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대상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하정선 회장은 “돈을 받지 않고 시다림 봉사를 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입고 가서 상을 당한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장엄염불로 정성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염불공양회는 시다림 봉사뿐 아니라 무연고 시신을 위한 봉사도 맡았다. 며칠 전에는 청십자 병원에 있는 무연고 시신을 위해 병원비 500만원을 해결하기도 있다.

하정선 회장은 “나라에서 무연고 시신의 장례는 진행하지만 병원비까지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비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나서줬고, 덕분에 잘 해결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도 전했다.

염불공양회는 동아대학병원, 부산의료원, 영락공원, 시민장례식장, 김해 전문장례식장 등 부산 및 경남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해 다비식, 시다림, 장엄염불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범어사, 통도사, 청련암 등 사찰에서 진행하는 막재에서 찬불가 음성 공양과 염불 봉사도 도맡는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에서 진행하는 봉축행사와 신년하례식, 사명대사 추모식 등에서 육법공양으로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